

기획 - <구성원이 바란다>

교수·교직원 ‘재정정책 변화’ … 학생 ‘교육의 질 확대’

2017학년도 구성원 인식조사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 어느새 다가온 2017학년도 1학기, 우리 신문은 개강을 맞아 우리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구성원들이 생각한 지난해의 문제점과, 우리학교에 필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설문조사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돼, 교수 44명과 교직원 52명, 양 캠퍼스 학생 698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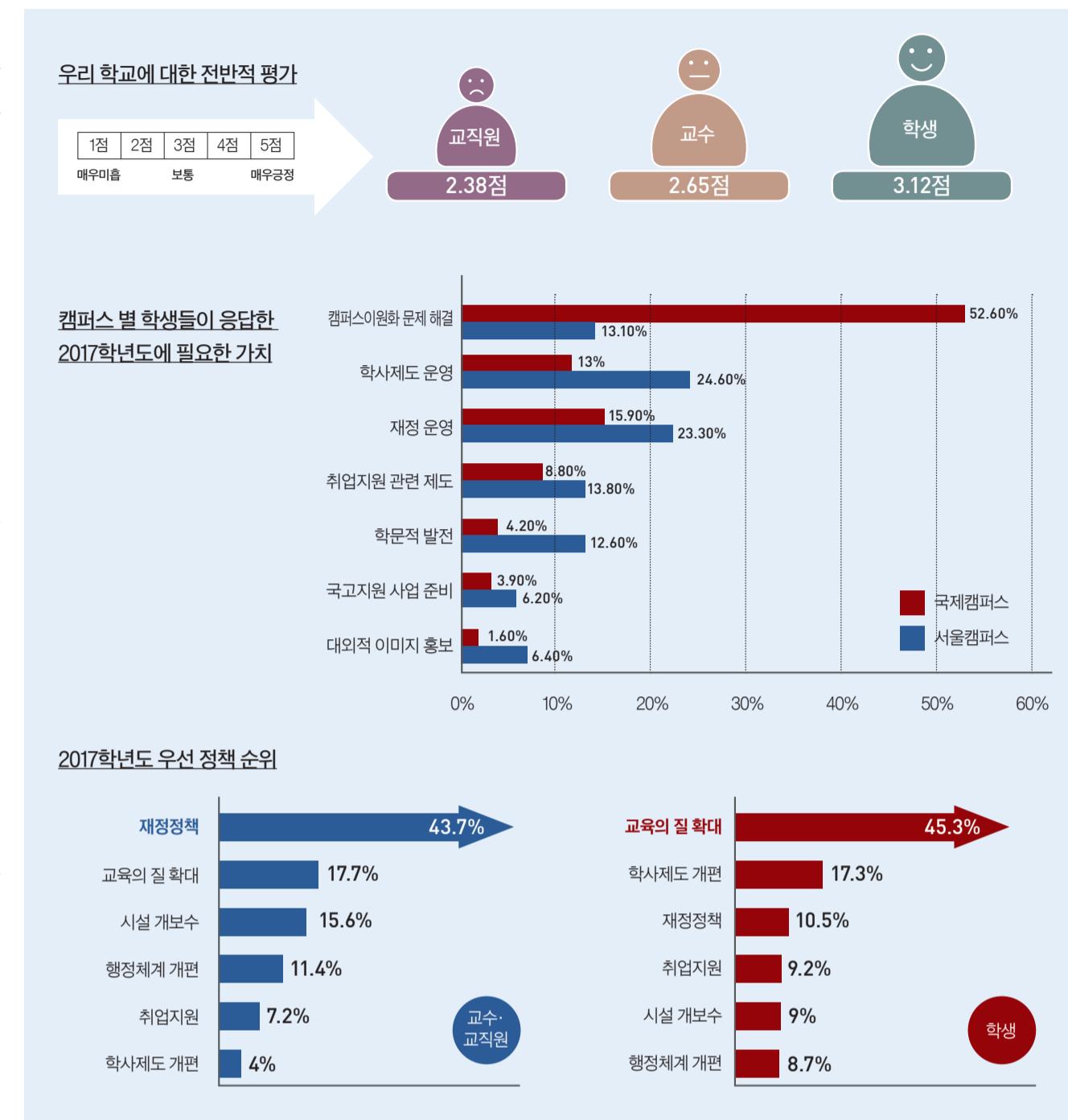
전반적인 평가…“보통~미흡”

우리 신문은 먼저 ‘지난 해 우리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교수와 학생의 응답 중 ‘보통’이 가장 높아 각각 29.5%, 38.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직원 중 가장 많은 응답은 ‘미흡(30.7%)’이었다. 다음으로 교수는 ‘긍정과 미흡’이 22.7%로 같았고, 학생은 ‘긍정(31.8%)’이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보통’을 택한 경우가 많은 것은 응답자의 관여도, 즉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분석된다. 조수영(언론정보학) 교수는 “보통 관여도가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 사람들은 보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기타 의견을 통해 ‘특별히 뛰어난 점도, 부족한 점도 찾기 어렵다’, ‘두루 끈찮다’며 긍정적인 견해와 함께 ‘특색이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한다. ‘매우 미흡’부터 ‘매우 긍정’을 1점에서 5점 순으로 환산했을 때, 응답집단 별 평균치는 교수 2.65점, 교직원 2.38점, 학생 3.12점으로 나타났다.

2016학년도 가장 빛난 점…“학문적 발전”

‘지난해 우리학교의 가장 뛰어났던 점’에 대한 평가는 교수·교직원·학생 모두 ‘학문적 발전’으로 일치했다. 교수의 경우 30.0%, 교직원이 21%, 학생은 27.5%가 이를 택했다. ‘학문적 발전’을 지난해 우리학교의 가장 뛰어났던 점이라고 생각한 이유로는 ‘국제화 부분에 강세를 보이는 점이 긍정적이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요즘, 인문학적 소양을 등한시하지 않는 대학’으로 대학, ‘국제적 수준의 교육 투자’, ‘후마니티스칼리지와 같은 교양 시스템이 잘 구축돼있다’고 답변했다.



구성원이 꼽은 2017 우선 정책 순위

교수와 교직원 모두 ‘재정정책’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의 질 확대’를 꼽았다. ‘재정정책’을 꼽은 교수와 교직원은 43.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의 질 확대(15.6%)’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했다. 앞선 문항에서 ‘재정문제’가 교수 연구역량을 확대하고 강좌 수를 확대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과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학생의 경우 ‘교육의 질 확대’가 45.3%로 가장 앞섰고, 그 다음으로 ‘학사제도 개편(17.3%)’과 ‘시설 개보수(15.6%)’ 뒤를 이었다. ‘재정정책’의 경우 10.5%로 나타나 세 번째에 위치했다. 이는 수강신청 가능한 강좌 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매번 수강신청 대량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배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7학년도 구성원이 바라는 개선사항

이밖에도 주관식 응답 중 ‘우리학교에 바라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공간 문제, 소통 문제 등이 제기됐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 모두 이공계열 실험시설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공계열 실험공간과 관련해서는, 지난 SPACE21 사업 구상 당시 신축이 예정됐던 ‘신공학관’ 건설이 연기된 바 있다. 학생과 교수 모두 ‘실험 공간 부족 문제’와 ‘SPACE21 사업을 통한 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수 답변 중에는 ‘SPACE21 사업을 통한 시설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학생 답변 중 ‘공과대학 내 실험 공간 부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줬으면 한다’, ‘교훈으로 민주화를 표방하는 한편 학교 행정체계에는 민주적 절차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외에도 대학본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교수 답변 중에는 교직원 중엔 ‘대외적으로 이원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아직 미흡하지만 학교 차원의 노력이 없다’는 답변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부족한 측면으로서 대체로 많은 응답을 얻은 ‘재정 문제’로 인한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교강사 충원과 강의증설은 ‘교육의 질’로, 연구지원비와 부서예산 감축의 경우 ‘연구 역량’의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SPACE21 사업 연기 및 축소는 ‘공간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재정문제 해결이 향후 구성원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년 예비군입무 주요 변경 / 휴일, 전국단위훈련 신청 안내

● ‘17년 예비군입무주요변경사항

- 예비군훈련보상비인상
 - 항병훈련(항방기본,동미참)교통비 : 6,000원→7,000원 *급식비는 6,000원
 - 동원훈련보상금 : 7,000원→10,000원 *교통비는 거리별차등지급
- 항병훈련(항방기본,동미참)교통비지급방법변경 : 현금→개좌이체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계좌번호로지급

● 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안내

- ※ 예비군이 기타사유로 타지역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 신청방법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www.yebigun.mil.kr) 공인인증서로그인→ 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클릭→ 훈련유형, 훈련지역, 희망훈련장, 희망개회, 훈련신청예비군부대선택→인적사항입력클릭→전국단위예비군훈련신청서 내용확인→훈련신청클릭

● 휴일예비군훈련

- 적용훈련: 동미침훈련(출,퇴근), 항방기본훈련, 항방작계훈련(1차,2차)
 - 휴일예비군훈련은 1개월 이전에 훈련일정공지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국단위훈련
 - 적용훈련: 동미침훈련(출,퇴근), 항방기본훈련, 항방작계훈련(2차)
 -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이전에 훈련일정공지
 -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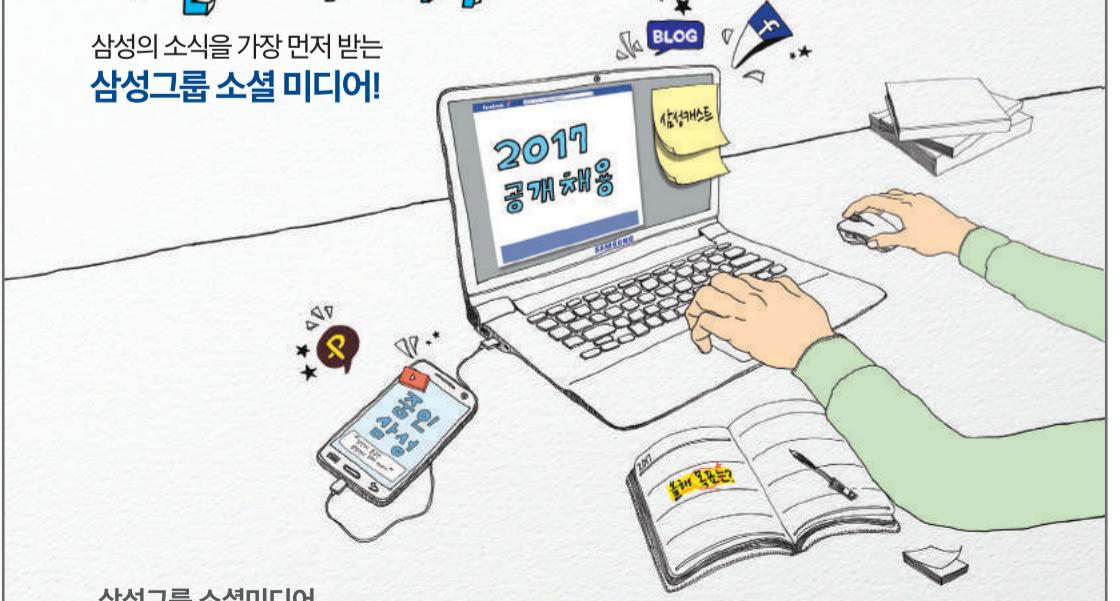
※ 휴일/전국단위훈련신청식재(취소)는 신청일 당일까지만 가능하며, 신청내역변경(수정)은 1회로 제한되며 훈련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만 가능

● 기타문의: 서울02-961-0148~9번과 국제031-201-3265~9번으로 연락바람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요즘 잘 나가는 저 선배 도대체 비결이 뭐야?

삼성의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
삼성그룹 소셜 미디어!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캐스트

www.samsung.co.kr/samsungcast

삼성 카카오 플러스친구

[카카오플러스친구>검색>삼성](http://kakao-plus.samsung.com)